

2025. 11. 26
수요일(주간)

제 857호

등록번호 광주 다 00100
(1999년 7월 2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社是
복음·선교·화합

정통 기독교 신문 미션리/

발행·편집인 : 박 현 주
발행소 : 미션21
인쇄처 : (주)대한칼라
대표전화 : (062) 367-9109
FAX : (062) 367-9108
e-mail : phj2930@nate.com
(우)61652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8(월산동
184-1 동삼빌딩)

미션21 입금계좌
농협 645-02-066108
예금주 : 박 현 주
국민은행 573-01-0045-028
광주은행 146-127-005850
예금주 : (유) 미션21

구독 및 광고문의 (062) 367-9109

2 보도- 제8회 오방상에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제8회 오방상에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이 선정됐다. 오방상운영위원회는 "요셉의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김과 나눔, 생명과 평화를 위한 오방 최후종 산생의 정신에 부합하여 제8회 오방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3 인터뷰-예장통합 제30회 광주동노회장 차현철 목사(주님의교회)



"노회장의 명제가 무겁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노회원들과 함께 지는 명제로 생각하고 노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총회 표어처럼 노회원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종진 목사 11월 국·내외 부흥성회

010-5256-7777
010-5256-7777

국·내외 부흥성회
11월 11일(수) 19:00
11월 12일(목) 19:00
11월 13일(금) 19:00
11월 14일(토) 19:00
11월 15일(일) 19:00
11월 16일(월) 19:00
11월 17일(화) 19:00
11월 18일(수) 19:00
11월 19일(목) 19:00
11월 20일(금) 19:00
11월 21일(토) 19:00
11월 22일(일) 19:00
11월 23일(월) 19:00
11월 24일(화) 19:00
11월 25일(수) 19:00
11월 26일(목) 19:00
11월 27일(금) 19:00
11월 28일(토) 19:00
11월 29일(일) 19:00
11월 30일(월) 19:00
11월 31일(화) 19:00

광주NCC 아카데미 인권주일 강좌 성료

‘한국기독교의 극우화와 교회의 과제’ 주제 강의
강사 변상욱 대기자, 광주벧엘교회 세미나실에서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광주NCC·회장 조규성 목사) 아카데미 인권주일 강좌가 지난 25일(화) 오전 11시 광주벧엘교회(위임목사 리종빈)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기독교언론포럼 공동대표 변상욱 대기자(전 CBS 종교부장·이단사이비 특별취재단장)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한국 기독교의 극우화와 교회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광주NCC, 전남

NCC, 전남동부NCC 회원들과 ‘건강한 교회와 사회포럼’ 회원, 지역 목회자와 교회 종직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변상욱 강사는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의 특징으로 “근본주의적 기질, 개신교 초창기 민족적 사회 참여적 열정이 1920년대 대부흥운동 이후 종교적 카타르시스와 개인 영성 위주로 전환, 식민시대 친일, 해방 이후 친미·친 이승만 성향, 5.16후 친미, 관변, 독

재정권에 유착해왔다”며 “재벌경제 드라이브에 따른 독점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가치관, 미국 신사도주의 가치관, 제국주의적 지배와 이념 주입식 가치관으로 인해 21세기 들어 국민적 도덕성과 신앙을 상실하고 자율정화와 내적 치유의 동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변상욱 강사는 “12.3내란 사태를 전후한 기독교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 통일교,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 세력과 극우 정치권과의 결합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혼란 양상이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내란상황이 정리된 후에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교단이나 총회 차원의 반성 성명 하나 찾아볼 수 없음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변상욱 대기자는 “교회는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양심이 되는 것이 사명”임을 강조하고 “한국교회는 이제 반성, 회개와 함께 공간을 열어 무도한 정권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NCC 아카데미 인권주일 강좌가 지난 25일 오전 11시 광주벧엘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강사 변상욱 대기자가 ‘한국기독교의 극우화와 교회의 과제’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광주 기독교 선교역사와 유산’ 학술회의 성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

광주광역시와 주최한 ‘광주 기독교 선교역사와 유산’ 학술회의가 지난 11월 20~21일 호남신학대학교 명성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광주 기독교 선교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광주 지역 교

계와 지방정부,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선교유산의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기독교 선교가 광주의 근대 교육, 의료, 사회 복지, 시민정신 형성에 미친 영향과 그 역사적 의미가 강조되며, 선교유산이 단순한 종교 유산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 체계에 중요한 뿌리가 되었음을 재확인하는 자리

였다. 학술 발표에서는 ‘근대 기독교 선교와 UNESCO 세계유산’, ‘광주 선교기지의 내력과 보편적 가치’, ‘선교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 등이 다뤄졌으며, 광주 양림동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선교기지가 한국 근대 문화의 중요한 공간이었음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특히 선교사들이 남긴 학교와 병

원, 교회, 주거지 등의 건축유산은 근대사의 생활문화와 정신사를 동시에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 자산으로 평가됐다. 또한 종합토론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전략과 과제가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조사와 기록, 보존관리계획 수립, 지역 주민과의 협력, 지속 가능한 활용 모델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재언했다. 단순한 등재 추진을 넘어, 선교유산이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하는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광주 기독교 선교역사와 유산’ 학술회의가 지난 11월 20~21일 호남신학대학교 명성홀에서 개최됐다.

강정원 목사 초청 세미나 및 연합성회

- 전남노회(통합) 직전노회장
- 총회(통합)부흥전도단 부단장
- 총회(통합)서부지역훈련원 부원장
- 호남신학대학교총동문회 62회 동문회장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 85기 대표회장
- 서울장신대학교 총회파송이사

11월23일(주)	포도원교회 임직식 권면
11월23일(주)~25일(화)	총회부흥전도단 연합성회(만남의교회당)
11월26일(수)	광주경찰청 설교
11월30일(주)	만남의교회 새생명축제
12월1일(월)	광주광역시서구교단협의회 성탄절화식 설교
12월3일(수)	광주경찰청 성탄트리 점화식
12월8일(월)~9일(화)	장로회신학대학교원 85기 정기총회(만남의교회)
12월15일(월)	전남노회목사회 정기총회·회장취임

대한예수교 **만남의교회** (우) 62012 광주광역시 서구 화계중앙로114번길 16
전화 062)384-5656 HP.010-2602-4554